



미래를 여는 마법 도구: AI 선생님의 비밀 작전

글쓴이: Max



2026년의 여름, 지윤 선생님과 민호 선생님은 'AI 선도교사 연수'가 열리는 커다란 홀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미래의 교실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마법 같은 곳이었죠. 두 선생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각자의 태블릿과 노트북을 켰어요. 앞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줄 놀라운 세상을 꿈꾸며 말이에요.





지윤 선생님은 제미나
이 캔버스와 캔바를 열
어보았어요.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자, 화면
속에서 울창한 정글과
신비로운 우주 도시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와, 이제 아이들이 상
상하는 무엇이든 그림
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
겠어!" 지윤 선생님은
빛나는 화면을 보며 미
소 지었어요.





옆자리 민호 선생님은 클로드와 챗GPT를 활용해 수업 일정을 짜고 있었어요. "클로드, 역사 속 주인공이 직접 들려주는 것 같은 탐험 이야기를 만들어줘." 민호 선생님의 요청에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흥미진진한 모험 소설을 써 내려갔어요. 민호 선생님은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두 선생님은 이제 노트북LM을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수많은 책과 논문 데이터를 넣자, 인공지능이 복잡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주었죠. 지윤 선생님과 민호 선생님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정보들로 가장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지 함께 고민했어요.



연수를 마친 후, 학교로 돌아온 지윤 선생님은 교실에서 하늘이를 만났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은 뭐예요?" 지윤 선생님은 비밀스럽게 웃으며 캔바를 켜어요. "오늘은 하늘이가 직접 미래의 동물원을 설계해 볼 거야. 인공지능 친구가 도와줄 거란다."



하늘이는 지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제미니에게 물었어요. "날개 달린 사자와 투명한 기린이 사는 집을 그려줘!" 잠시 후, 화면에는 하늘이가 상상만 하던 신비로운 동물원이 완벽하게 그려졌어요. 하늘이는 기뻐서 제자리에서 폴짝 뛰었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민호 선생님이 나라와 함께 클로드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는 역사 속 장군님이 되어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눴죠. "장군님,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민호 선생님은 나라가 인공지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어요.





"선생님, 질문을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한 답이 나올까요?" 나라의 물음에 민호 선생님은 프롬프트(명령어)를 더 자세히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인공지능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정해주면 더 똑똑한 답을 들을 수 있어." 나라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롭고 멋져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텅 빈 교실, 지윤 선생님과 민호 선생님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이지만, 선생님의 열정과 합쳐지니 정말 큰 힘을 발휘하네요!" 두 선생님은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함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